

韓國 名門家の 住居生活

조 용 현* 교수(원광대학교)

1. 명문가는 전통고택을 보유한 집안이다.

어떤 집안을 명문가로 볼 수 있는가. 명문가의 기준은 무엇인가. 보는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겠지만, 필자는 그 기준을 전통고택의 보유 여부에 두고자 한다. 전통 고택을 현재까지 보존하고 있으면 명문가라고 생각된다. 어떤 집안이 전통고택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시사한다. 첫째는 재력이다. 재력이 없으면 수천평의 대지에 평균 50-60칸에 달하는 기와집을 유지할 수 없다. 이 정도의 고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를 상징하기도 한다. 둘째는 역사와 전통이다. 고택들은 1백년에서 - 5백년까지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문화재에 해당되는 건물들이기도 하다. 고색 창연한 문화재급 건물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그 집안이 거기에 비례하는 전통문화를 지니고 있다는 말과도 통한다. 명문가의 기준가운데 하나는 자기나라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이다. 고택에서 생활하는 이들의 생활자체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셈이다. 세 번째는 긍지와 자존심이다. 아파트로 옮기지 않고 생활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전통고택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자존심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자존심이란 자신들의 선조와 집안에 대한 긍지이기도 하다.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자존심과 역사를 버릴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는 도덕성이다. 동학, 일제 36년, 6.25와 같은 역사적 전환기에 이러한 집들이 훼손되거나 불타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도덕성이 바탕에 깔려 있다.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것이다.

* 원광대학교 동양학 대학원 교수. 철학박사. 불교민속학 전공
저서: 「500년 내력의 명문가 이야기」

존경받지 못한 집들은 역사적 전환기에 불타거나 사라졌다. 현재까지 유지된다는 사실을 뒤집어 보면 그만큼 검증 받았다는 말이기도 하다.

2. 안채과 사랑채의 분리

한국의 명문가들의 주택구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안채과 사랑채의 분리이다. 이들 고택들은 대부분 여자들이 거주하는 안채와 남자들이 거주하는 사랑채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 안채와 사랑채는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사이를 왕래하려면 문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집안을 방문하는 외부 손님들 가운데 남자 손님들은 안채에 들어갈 수 없다. 식사는 어떻게 하는가? 식사는 안채의 부엌에서 만들어서 사랑채로 운반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랑채에는 부엌이 없었기 때문이다. 밥상을 들고 안채의 부엌에서 사랑채로 옮기는 일은 하인들이 맡았다. 일부 고택의 경우에는 사랑채에 부엌이 설치되어 있었다. 대구 남평문씨(南平文氏)의 고택인 광거당(廣居堂)의 경우에는, 사랑채인 광거당에 별도로 부엌이 설치되어 있어서 음식을 나를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이는 안채와 사랑채인 광거당이 1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던 탓이다. 사랑채와 안채를 분리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부부유별(夫婦有別)을 내세우는 성리학의 영향이 컸다. 夫婦有別 속에는 성리학이 추구하는 금욕정신이 내포되어 있다. 성리학의 이념인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기본에는 修身이 있고, 이 修身에는 性的인 禁慾이 은연중에 전제되어 있었다. 그러자면 방을 따로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남편이 부인이 기거하는 침실에 가기 위해서는 안채의 문을 통과해야 하였는가. 이는 집안 구성원들의 눈에 띄는 행동이어서 속쓰러웠다고 여기고, 사랑채에다가 안채로 통하는 문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남편은 사랑채의 방에서 다른 사람의 이목을 피하면서 부인이 기거하는 안채의 안방에 건너갈 수 있도록 별도의 문이 장치되어 있었다. 사랑채에서 안방으로 건너가는 통로는 마루로 연결되었다. 신발을 벗지 않고도 마루를 통해서 안방으로 갈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러나 부부를 연결해 주는 이러한 비밀통로(?)가 없는 고택들도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안채의 대문을 통과해야만 하였다. 사랑채와 안채를 분리해서 남편과 부인이 따로 거처하도록 하는 관습은 조선중기 이후로 일반화되었다. 조선전기 까지만 하여도 남편과 부인은 같은 방에서 생활하였다. 성리학이 일상생활을 지배하기 시

작하는 조선중기 이후로 국가에 의하여 분리구조가 권장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별도기거는 물론 재력을 갖춘 양반가에서만 가능하였다. 서민들은 사랑채와 안채를 별도로 지을만한 재력이 없기 때문에 애당초 불가능하였다.

안채와 사랑채의 배치구조를 보면 전후관계이다. 사랑채가 앞에 있고, 안채는 사랑채의 뒤에 있는 구조이다. 안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랑채를 통과해야 한다. 안채는 여자들만이 거주하는 공간이므로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남자들이 기거하는 사랑채를 통과해야만 했던 것이다. 또 다른 형태는 ㄱ자 형태의 배치이다. 바깥 부분에는 사랑채가 들어간 부분에는 안채가 있는 형태이다. 이런 경우 안채에 접근하는 통로는 2군데 방향이다. 직접 안채 대문으로 들어가는 문도 있고, 사랑채를 거쳐서 안채에 들어가는 문이 있다. 이 구조의 장점은 여자들이 안채를 출입할 때 사랑채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전후관계의 형태는 여자들이 안채에 갈려면 남자 사랑채의 모서리를 돌아야 하지만, ㄱ자 구조는 사랑채를 거치지 않고 직입한다는 장점이 있다. ㄱ자 형태의 구조가 조선시대 상류층 고택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ㄱ자 구조보다 좀더 개방적인 구조도 있다. 안채와 사랑채가 병렬로 배치된 고택이 바로 그것이다. 안동 하회마을의 양진당(養眞堂)이 바로 이러한 구조이다. 오른쪽에는 사랑채, 그리고 왼쪽에는 안채가 있다. 양진당의 병렬 구조는 다른 고택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매우 특이한 형태이다. 그 이유는 풍수적인 부분과 관련이 깊다. 양진당의 터가 병렬로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지리적 구조였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안채와 사랑채의 관계에서 눈 여겨 볼 사항은 안채 대문의 구조이다. 안채로 들어가는 대문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안채 대문을 열면 그 다음에는 또 하나의 간이 대문이 있다. 간이 대문은 블라인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외부인이 안채 대문을 열었을 경우에 안채 내부가 곧바로 보이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간이 문을 설치하였다. 그러므로 안채에 들어가려면 결과적으로 문을 2개 통과해야 한다. 바깥 대문이 오른쪽이 열려 있는 구조라면, 안쪽 대문은 왼쪽이 열려 있는 구조이다. 이중 대문은 외부 사람에게 안채 내부의 모습이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경주시 교동에 있는 최부자집의 안채 대문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3. 풍수와 주택배치

1) 문필봉(文筆峰)

명문가의 고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풍수이다. 현재 남아 있는 고택들의 배치를 보면 대부분 풍수적 원리에 따라 자리잡고 있다. 주택에 있어서 적용되는 풍수의 기본원리는 배산임수이다. 배산임수를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추가되는 부분이 문필봉(文筆峰)이다. 필자가 보기에 한국 명문가의 주택에서 가장 주목되는 풍수적 배치는 문필봉이라 불리우는 봉우리이다. 문필봉은 그 모습이 붓과 같이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각형 모양으로 뾰족한 산 봉우리를 문필봉이라고 부른다. 이 문필봉이 집터 앞으로 보이면 그 터에서는 문필을 잘 사용하는 학자가 나온다고 믿었다. 조선시대는 학자를 우대하는 사회였으므로 부자나 권력자보다는 문필가, 즉 학자가 보다 우대 받았던 사회였다. 명문가의 자격조건 가운데 으뜸이 그 집안에서 유명한 학자를 배출했는가 하는 대목이다. 퇴계나 율곡 같은 대학자의 배출은 그 집안이 현재까지 명문가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학자의 배출을 위해서 노력했던 조선시대 사람들은 집터를 잡을 때에도 학자가 나올수 있는 터를 무엇보다 원하였다. 그 대안이 바로 문필봉이 바라다 보이는 집터였다. 실제 필자가 답사해본 결과 우리나라 고택의 60-70%는 집터(陽宅) 아니면 묘터(陰宅) 앞에 문필봉이 존재하였다. 예를 들면 충남 여산에 있는 가람 이병기 선생 고택, 전북 왕궁면의 진천 송씨 고택인 망모당, 안동의 퇴계 종택과 학봉 김성일 종택, 전남의 고산 윤선도 고택 등등이 문필봉을 마주보는 형국이다. 시골 마을을 지나다가 삼각형 모양의 문필봉이 보이면 그 동네에는 틀림없이 유명한 학자가 살았던 동네라고 짐작하면 맞다.

2) 건물의 방향과 비보(裨補)

대문의 방향도 눈 여겨 보아야 한다. 선호했던 방향은 남향의 집터에 동향의 대문이었다. 대문은 주로 옆으로 내었던 것이다. 일직선으로 바라다 보이는 방향의 대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피하였다. 본채와 일직선상의 대문을 피한 이유는 기운이 직접 부딪친다고 보았던 탓이다. 그러나 일직선상에 좋은 봉우리, 예를 들면 문필봉이 보이면 일직선상이라도 대문을 만들었다. 좋은 봉우리쪽으로 대문을 만들면, 그 좋은 봉우리가 집으로 온다고 보았다. 가장 피하는 봉우리는

바위산이다. 풍수에서 암산은 기가 너무 강하다고 보았다. 강한 바위산은 殺氣에 해당한다. 따라서 집터 주변에 암산이 보이면 그 방향에는 건물을 높이 세웠다. 다른 건물보다 1미터 정도 높게 세워서 그 바위산이 집터에서 보이지 않게 가렸다. 경남 거창의 동계 정은 선생 고택이 여기에 해당한다. 집터 오른쪽으로 보이는 금원산(金猿山)이 바위산인데, 이쪽을 차단하기 위하여 오른쪽에 자리잡은 건물들은 본체에 비하여 특별히 높이 위치하고 있다. 이걸 비보(裨補)라고 한다. 풍수적인 약점을 인위적으로 보강하는 장치이다.

안채와 사랑채의 방향이 다른 경우도 있다. 풍수적인 형국상 집터는 서향으로 되어 있어서 사랑채는 서향으로 자리잡았는데, 안채는 이와 달리 남향으로 잡는 경우도 있다. 안채를 틀어서 잡는 방법이다. 이는 햇볕 때문이다. 남향이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탓에 여자들이 사는 공간인 안채를 남향으로 잡는다. 빨래나 기타 살림에는 남향이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배치이다. 해남의 윤선도 고택인 '녹우당'이 이러한 케이스이다. 풍수적 배경과 실용적인 목적이 혼합된 사례이다.

3) 산실(産室)

명문가에는 산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점이 흥미롭다. 산실이라 하면 '아이를 임신하기 위한 합궁용(合宮用) 방' 또는 '아이를 출산하는 방'을 말한다. 아이를 출산할 때 아무 방에서나 낳지 않고 지정된 방에서 낳는 관습이 있었다. 이는 출산이나 임신할 때 특별한 장소의 영향을 받는다고 여겼던 탓이다. '인결은 地靈'이라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다. 인물은 지령 즉 땅의 특별한 기운을 받고 태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이를 임신하거나 낳을 때는 특별한 방을 지정하였다. 안동대학교 지나서 내앞(川前)에 위치한 의성김씨 대종택에는 다섯아들이 태어난 방이 산실로 보호되고 있다. 안채 대청마루의 입구에 있는 이 방은 학봉 김성일을 비롯한 5형제가 태어난 방이다. 이 5형제는 모두 과거에 급제하는 경사를 맞았으므로, 세간에서는 이 집을 오룡지가(五龍之家)라고도 부른다. 안동일대에서는 한 집안의 5형제 모두 가 과거급제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집의 영험한 산실 덕택이라고 이야기한다. 경주 손씨 대종가인 우재 손중돈 고택에도 역시 산실이 있다. 이 산실에서는 인물이 3명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3명 가운데 우재와 회재 이언적이 이 방에서 태어났고, 나머지 한 명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손씨 집안 종가의 신혼부부는 아직도 이 산실에서 회임(懷妊)하는 습관이 남아 있다. 풍수적으로 볼 때 산실은 그 집터에서 지기(地氣)가 흐르는 지점

에 위치하고 있다. 지기를 파악하는 가장 손 쉬운 방법은 바위나 돌이다. 그 방 밑으로 바위나 돌이 묻혀 있으면 그 방의 지기는 다른 곳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하다. 산실들은 공통적으로 지기가 강한 곳에 자리잡고 있다.

4. 궁합(宮合)과 택일(擇日)

조선시대 명문가일수록 궁합과 택일을 중요시 하였다. 좋은 2세를 얻는 관건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궁합과 택일의 원리는 음양오행(陰陽五行)이다. 陰人에게는 陽人이 맞다. 水가 많은 사람에게는 火가 많은 상대가 좋다. 음양과 오행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생년, 월, 일, 시를 가지고 판단한다. 만세력을 보고 생년, 월, 일, 시를 환산하면 육십갑자로 표시된 사주팔자가 나온다. 이 사주팔자는 다시 음양오행으로 인수분해 될 수 있다. 신혼부부가 합궁을 할 때에도 어떤 날에 합궁할 것인가를 가려서 하였다. 그 방법은 이렇다. 남자의 사주팔자에 금이 지나치게 많은 목이 많은 날 날짜를 잡거나, 아니면 화가 많은 날을 잡는다. 금극목(金克木)의 원리에 의하면 목이 많으면 금의 힘이 빠진다. 금이 지나치게 강하면 적당히 힘을 빼야 한다. 또 하나가 화극금(火克金)이다. 화는 금을 극한다. 그래서 화가 많은 날을 택하면 금체질에게는 보완이 된다. 만세력에서 보면 목이 많은 날은 寅(寅)이나 卯(卯)일이다. 화가 많은 날은 巳(巳)이나 午(午)일이다. 택일을 할 때 남자의 사주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여자도 같이 보아야 한다. 남자와 여자 모두의 사주를 모두 조화시킬 수 있는 날짜를 잡았다. 날짜뿐만 아니라 時도 중요하다. 시에도 12시가 있어서 수, 화, 목, 금, 토가 모두 있다. 子(수), 丑(토), 寅(목), 卯(목), 辰(토), 巳(화), 午(화), 未(토), 申(금), 酉(금), 戌(토), 亥(수)의 12支에는 각각 음양오행이 배당되어 있다. 사주에 토가 부족한 부부는 토에 해당되는 시간을 택해서 합궁을 하였던 것이다.

〈 토론 〉

韓國 名門家의 住居生活

박 선 희 교수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주거학 전공)

명문가-줄여서 명가라고 하겠다.

한국 명가는 반가가 아니면 나올 수 없으며 대부분 훌륭한 조상을 지닌 가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인물 중심에서 들여다 볼 때의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주거문화라는 측면에서의 명가는 어떠한가. 아마 훌륭한 인물을 가진 가문에서의 주거문화는 어떠한가 라고 묻는다면 오히려 매우 청렴한 주거생활을 지닌 경우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여겨진다. 그러므로 명가의 주거문화라는 것은 오히려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

주거학에서 접근하는 명문가의 주거문화는 오늘날 상류가옥이라고 일컫는 집들을 기본으로 하여 각 가옥이 지닌 특성이나 개별적 주생활에 대한 특성을 말할 수 있다. 본문에서와 같이 사실 오늘날까지 전통고택을 지닌 경우는 대부분 사당 채를 가진 종가들이다. 조상의 신주를 모신 사당 채야말로 후손이 함부로 없애거나 훼손할 수 없는 중요한 장소로서 종손이 이를 지켜야할 막중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건물을 이어서 짓지 않고 따로따로 필요에 의하여 축조하는 것은 삼국시대 이래 이어져온 우리나라의 구조방식이다. 사랑채 공간이 분리 확대되고 대문간 가까이 마련되는 그 위치적 특성은 조선시대 후기에 정착된 형태로 보이는데 이는 반가 뿐만이 아니라 일반 중상류 농가 주거에서도 나타나는 우리나라 전반적 특성이다. 특히 조선 후기 농업기술의 발전에 따라 농경이 활발해지고 마당은 농 작업을 위한 중요한 장소로 활용되면서 정원은 별당이나 후원으로 퇴색하고 마당은 의례나 작업을 위한 실용적 기능을 충족하기 위하여 항상 깨끗이 비워둔 외부 공간으로만 남게 되었다. 이러한 마당공간의 요구는 안채 마당과 사랑채 마당의 공간적 크기가 증대됨에 따라 상류 부농 가옥의 경우 안채와 사랑채의 간

격은 더욱 떨어지게 되었다.

풍수지리의 심오한 이론에 대하여는 언급하기 어려우나 본인은 풍수지리의 우선적 역할은 왕성과 같은 수도입지의 도시계획과 같은 맥락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새로운 정치 지도자의 행정적 터전으로서의 수도입지는 정치적 중심지이자 외부세력에 대한 방어적 입지가 좋고 주변에 수자원이 풍부하며 그러면서 수도권에 모여들 많은 인구의 수용이 가능한 곳이어야 했던 것이다.

오늘날은 모든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할 수 있으나 과거에는 그러지를 못했다. 산은 방어의 중요한 환경이었으며 물은 사람이 마시고 사는 데 기본이었던 것 만큼 이 두 가지가 풍수의 기본요건이 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한 요건이 일반 가정에서도 파급되어 조상 뿐 만 아니라 신이나 하늘 또는 내세 사상과 관련한 운명론적인 사고 체계를 지닌 봉건 사회에서의 사람들에게 합리적이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물 중심의 사주팔자와 연관시킬 수 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발상이 명문가의 욕심을 부추기면서 많은 지사(地師)들에 의하여 양택은 물론 음택에도 요란하게 파급되어 오늘날까지 명당론이 득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음택의 지나침에 대하여 다산 정약용은 ‘풍수의 허위’라고까지 기술하고 있으며 박제가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이를 비판하고 있다.

서민이나 반가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지닌 한국 전통 주거의 기본적 특성은 시원한 여름철과 따뜻한 겨울철이라는 상반된 계절을 온돌과 마루로 잘 조화시킨 구조적 특성이다. 이러한 연유로 집안은 부엌인 토방구조, 온돌방, 마루가 적절히 한 지붕아래 만들어졌으며 창호는 한지로 마감되어 빛과 소리와 공기, 그리고 모습까지 반 투과되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바깥과 안은 상호 교류하는 독특한 공간적 특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족뿐 만이 아니라 친지나 하인층이 함께 기거한 반가의 주거문화는 인간적 관계를 매우 신중하게 처리한 심리적이고 철학적이며 아울러 미학적인 경지를 함께 지닌 고도의 아름다운 주거문화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크게 두가지 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주거공간의 조화로운 위계적 배치이다. 외부 세계의 사회적 공간에서 대문간에 들어서면 집안이 되는데 이때부터 행랑간과 사랑채, 그리고 안채, 다음이 사당채의 순으로 이어지며 각 공간은 사잇담과 중문이 형성되어 공간의 구획이 이루어지면 각 공간은 위계성에 따라 조화로운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다. 대지의 형상에 따라서도 적절히 그 높낮이가 높아야 두 계단이나 세 계단씩 되어 위험하지 않고 조화롭게 이어지며 결코 무리하게 오르거나 내려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기능적 배치와 구조를 지니고 있다. 얼핏 현대적 분석으로만 일견해 볼 때는 전통주택이 말할 수 없이 불편하나 시설이나 설비의 미발달이라는 변수를 제외하면 당시의 생활구조로는 가장 기능적이라는 점이다. 농경생활에 맞는 마당과 농작업에 따른 광과 곳간의 구성, 당시 반가의 수많은 제사나 일상 식생활의 유지를 위한 각종 수납공간과 장독의 발달, 유학의 사회적 사상에 따른 3대 가족의 기거 공간을 위한 각 방의 구성 등은 매우 기능적이고 심지어는 시각적 프라이버시까지 고려한 예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본 발표에서도 잘 설명되고 있다.